

진로결정시기가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박소영(朴昭暎)* · 민병철(閔丙哲)*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진로 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문이과의 구분이 이후 많은 학생들의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지만, 그 영향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때 선택한 진로의 지속 정도와 지속여부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임금과 직업만족도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약 43%의 학생이 고등학교 때의 진로결정과 다른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의 진로결정을 변경해 최종적인 결정이 늦어질수록 임금과 직업만족도가 낮았다. 이런 결과를 살펴볼 때,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결정수준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보다 심도 있는 진로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 주요어 : 진로발달, 교육-노동시장 이행, 진로결정시기, 임금, 직업만족도, 진로지도

I. 서론

한국의 교육체제 내에서 일반계 고등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이 종료되는 고등학교 2학년과 대학진학, 그리고 취업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

* 한국교육개발원

이 운영되는 현재 고등학교 체제 내에서 이론적으로 기존의 문과와 이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내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7차 교육과정은 선택과정을 확대하여 기존의 문과와 이과의 구분보다 더 세분화되고 개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을 기대하고 구성되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교사수급 문제에 부딪혀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여 선택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다.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문·이과 구분은 학생의 진로결정을 위해 여전히 최초이면서도 중대한 의사결정과정일 뿐만 아니라 일단 문과 혹은 이과를 선택하고 나면 이 결정을 번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시 말해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의 진로성숙도를 고려할 때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따라서 그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처럼 분화된 사회에서 전문화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을 고등학교 시기에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은 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2학년부턴 전문교과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간의 진로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요 진로결정 시기가 인간의 지적 혹은 정서적 발달 상 충분히 성숙된 시기인지에 대한 검증 없이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이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되지 않은 채로 지적 성숙 측면에 초점을 두어 교육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결정이 대학진학 이후의 삶이나 취업한 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런 연구의 부족은 상당 부분 학교와 직업세계를 많이 연결짓지 못할 만큼 데이터가 부족한 데 기인하며,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의사결정과 대학, 그리고 직업 이후의 삶에 대해 연결시킬 수 있었던 데이터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까닭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근래에 학교에서의 진로지도가 강조되고 개인의 적성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직업의 선택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와 대학, 혹은 대학과 직업세계를 연결짓는 고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증가하는 관심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그동안 부족했던 연구 분야를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문·이과 구분에서부터 이들의 대학진학, 그리고 취업의 질을 연결 짓는 연구 설계를 구상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결정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취업 단계에서 지속되는가?

2.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결정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임금과 직업만족도가 높은가?
3. 고등학교 이후 경험하게 되는 진로결정시기(고교2년, 대학입학시, 취업)가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이상의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와 학교에서 노동시장 혹은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를 이론적 배경과 주요 선행연구로 삼는다. 본 연구는 주로 전공과 직업 혹은 직무의 불일치¹⁾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흔히 쓰이는 직무불일치는 과잉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전공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김기현, 2005).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개인의 진로발달과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국내와 국외에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1절에서 개인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주요 이론을, 2절에서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주요 이론을 검토하고, 이후 3절에서는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전공과 직무의 일치 혹은 불일치가 임금 및 직업만족도 등의 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구성하였다. 4절에서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진로결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혹은 성인 초기의 진로결정이 이후 직업 혹은 진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포함시켰다.

1. 개인의 진로발달에 관한 이론적 검토

본 연구는 개인의 진로결정시기와 이후 직업세계에서의 임금 및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진로발달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개인의 진로가 언제 결정되는가에 관해 발달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진로가 정적으로 한 순간에 결정되기보다 발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본 연구는 개인의 진로결정이 고등학교 시기, 대학입학 시기, 입직 시기로 각각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의 결정을 발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선행연구에서 job mismatch 혹은 job satisfaction에 대해 직무와 직업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아 사용하고 있어 본고 역시 직무와 직업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

발달적 관점에서 진로발달과업이란 “진로의 발달적 과정에서 개인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심리적인 위치”로 개념화된다(류창열, 1990). 발달 단계에서 기본적인 과업은 자아개념에 대한 이해와 일에 대한 이해로 나뉘는데 Super(1955)는 진로발달이 개인의 정신적 성숙과 동일시된다고 하여 진로의식의 발달이 곧 자아개념의 발달인 것으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진로발달에 관한 이론은 Erikson(1963), Ginzberg et al.(1951), Havighust(1964), Super(1957) 등이 주장하였는데,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청년기의 직업과 관련된 발달과업은 다음과 같다. 청년기를 16세에서 25세라 한다면 이 시기의 직업과 관련된 발달과업이라 함은 우선 1) 학교생활, 여가생활, 시간제 근무 등을 통해 직업적 탐색을 시도하고, 2) 이를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하여 일을 경험하며 3) 궁극적으로 생산적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본 연구의 초점이 우리 나라의 학생이 여러 이론에서 묘사되고 있는 청년기의 진로 관련 발달 과업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로발달 이론에 관해 구체적인 분석은 생략하였으나 본 연구가 개인의 진로발달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문헌들을 소개하였다.

2.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이론 검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주요 이론을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크게 결핍모형, 기회구조 모형, 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으로 요약된다(장원섭, 1997; 1999). 결핍모형은 노동의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졸업생의 직업세계로의 입문은 학생 개인의 기술, 능력 등의 개인 특성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실업은 학교가 충분히 교육시키지 못한 채 졸업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회구조 모형은 결핍모형과는 다르게 노동의 수요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설명한다. 이 모형은 개인의 성별이나 학력 등의 특성에 따라 이미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으며 개인의 능력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이미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은 다르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상의 모형이 시장모형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이 구직과 구인이라는 보다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구직과 구인이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구조 등의 문제보다는 구직하는 측과 구인하는 측을 매개하는 ‘정보제공’이라는 요소가 개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음에 관심을 두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Rosenbaum(2001)은 고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에 대해 노동시장분절이론, 인적

자본론, 신호이론,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4가지 이론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들 이론은 장원섭(1997, 1999)이 소개한 이론과 유사하며, 노동시장분절이론은 기회구조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인적자본론은 결핍모형으로, 네트워크 이론은 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Rosenbaum(2001)의 구분에서 장원섭(1997, 1999)이 소개하지 않았던 신호이론은 인적자본론에서 실제로 어떻게 개인의 능력이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데, 개인의 학력이나 전공 등의 체계가 구인자에게 하나의 신호로 작용하며, 이러한 신호체계에 더해 구직자는 고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는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일자리의 직무 내용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김기현, 2006; Allen & van der Velden, 2001). 고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주체를 다루고 있는 국내의 문헌은 대체로 장원섭(1997, 1999)의 구분에 따라 이론적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3. 직무불일치에 관한 선행연구

가. 직무불일치 현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무불일치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담당한 직무에 비해 교육을 더 받거나 혹은 덜 받아 직무와 교육의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과잉교육 혹은 과소교육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으며, 전공에 따른 직무불일치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다. 그러나 직무와 교육수준 혹은 학력의 불일치가 경제적 관점에서 주목받는다면 직무와 전공 내용의 불일치에 관한 연구는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내용과 직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 교육학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김기현, 2006).

국내에서 이루어진 전공 관련 직무일치 혹은 직무불일치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창원 외(1998)의 연구에서 직무와 최종학교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32.8%를 차지하였다. 장원섭 등은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고교와 직업세계, 대학과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를 2차년에 걸쳐 진행시켰다. 이에 따르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전공불일치 비율이 약 50.8%나 되었는데(장원섭, 김형만, 옥준필, 1999), 이는 학력이 낮은 경우 전공불일치 취업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고졸 취업자의 경우 직무와 전공의 관련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비해 훨씬 높은 76.4%인 것으로 나타나 고졸 취업자들의 전공과 직무의 불일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에서는(장원섭, 김형만, 옥준필, 2000) 통계청의 1997년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대학이상 졸업자의 전공불일치 취업 정도가 31.6%이며 학력이 낮을수록 불일치 정도가 높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공불일치 직무자의 약 74.8%가 자신

의 업무능력이 전공자에 비해 높거나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0% 이상이 훈련만 거치면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전공과 직무 간의 괴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장원섭, 김형만, 옥준필, 2000).

나. 직무불일치와 임금

이상과 같은 전공일치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연구에서 나아가 전공일치 취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채창균, 채창균, 최지희, 옥준필(2005)의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한 조사를 활용하여 대학교육 만족도와 노동시장의 이행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공분야 취업자와 비전공분야 취업자 간 절대적인 임금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인적 특성이나 전공계열, 산업 및 기업규모 등의 변인을 통제한 경우 전공취업자의 경우 비전공취업자에 비해 약 4%의 임금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ender & Heywood(최영섭, 박재민, 2007 재인용)의 연구결과 역시 전공일치 취업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는데,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공직업불일치가 심할수록 소득수준과 일자리 만족도가 낮고 이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obst(2007)는 인적자본론에 입각하여 세부전공별로 전공과 직종의 불일치 비율을 살펴보고 전공직업불일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의 약 20%가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았다. 전공별로는 보다 일반적인 기술을 학습하게 되는 어학, 사회과학, 인문학 전공자들의 전공직업 불일치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전공일치취업자의 경우 전공불일치 취업자에 비해 임금이 높았으나 인문학과 같은 일반적인 기술을 학습하는 전공의 경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으며, 직업이 전공과 관련이 높은 전공일수록 그 차이가 컸다. 최영섭, 박재민(2007)은 이공계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계열별로 전공일치 취업과 전공불일치 취업자의 경우 취업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전공일치 취업자와 전공불일치 취업자 간 취업소요기간 차이는 보여주지 않았다.

한편 김안국(2006)의 경우 이공계 졸업자가 전문가/기술자 직종이나 준전문가/기술공 직종에 취업한 경우 전공일치로 간주하고 이공계 대학 졸업생의 전공일치 취업여부에 따른 임금수준 차이와 전공일치 선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공일치인 경우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고 하여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전공일치취업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른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구분하게 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직종의 분류에 따라 연구자가 임의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실제 전공직종일치 여부와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최영섭, 박재민, 2007). Allen과 van der Velden(2001)의 연구는 교육과 직업의 불일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주로 과잉교육 혹

은 교육부족 현상에 주로 주목하고 있으나 전공불일치에 대해 연구의 변인 중 하나로 포함시켜 전공불일치가 임금, 직업만족도, 다른 직업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공불일치는 이 연구에서 제시했던 종속변인인 임금, 직업만족도, 다른 직업탐색 등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교육과 실제 기술습득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공불일치가 임금 등의 변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해 전공에서 배운 교육의 내용과 현재의 직업 사이의 관련성이 미약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직무불일치와 직업만족도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대학의 전공과 직무의 일치 정도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발전하게 되었다. Smart et al.(1986)은 대학 전공과 직업분야, 직업 만족도를 연결시킨 연구 중 선도적인 연구라 할 수 있으며, 대학 졸업 후 5년차 직장인을 대상으로 전공과 직업의 일치정도에 따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밝혀냈다. Elton과 Smart(1988)는 이어 졸업 후 9년차 직장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 결과 전공일치가 직업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icko와 Beehr(1992) 역시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Wolniack과 Pascarella(2005)는 이들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직업만족도와 임금을 연결시켜 임금이 직업만족도를 예측하는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전공직업일치도와 임금의 인과적 관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변인의 개념상 정의를 정교화하고자 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직업만족도라는 하나의 개념에 각각 다른 측면 이를 테면 직업내적 만족도, 직업외적 만족도, 일반적인 만족도 등의 세부적인 구분 없이 만족도를 측정했음에 주목하고 만족도 개념을 세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역시 개인의 인식에 따른 일치도와 실제 일치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식상의 일치도와 실제상의 일치도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임금과 전공일치도는 전공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전공과 인식상의 일치도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나타냈다. 즉, 인식상의 일치도는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실제상의 일치도는 만족도의 측면에 따라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변인에 대한 엄밀성을 높이고 전공, 전공일치도와 직업만족도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3. 진로결정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진로결정은 현재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설정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에서의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졸업 후에 자신이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분야의 선택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이런 점에서 진로결정은 직업결정과 진학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로결정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는 직업심리학, 사회심리학, 직업심리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지만(김정숙, 황여정, 2007), 많은 연구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 연구와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의 효과를 밝히는 연구로 구성된다. 이는 진로에 관한 연구가 역사적으로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에서 출발하여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연구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

반면 진로결정수준 혹은 진로결정이 학생의 이후의 삶 혹은 직업에서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신희경, 이종승, 2006). 이는 한편으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각각의 학문분야에서 분리되어 진행되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직업세계 이후의 삶을 아우르는 종단적 데이터가 부족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학생이 학교재학 시 내렸던 진로결정에 따른 직업에서의 삶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진로결정의 결과로 이후 직업에서의 만족도나 결과물에 대한 영향은 아니지만 대학생활에서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서 신희경, 이종승(2006)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대학 진학 시 내적동기의 영향력을 매개로 하여 대학 만족도 및 적응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II.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1.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시기가 이후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요 연구문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이후 학생들이 겪는 3차례(고교 계열 결정, 대학 전공 결정, 취업)의 진로결정과정에서 고교 때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따라 진학·취업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 시장에서의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과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취업 상태, 교육 수준, 개인 배경)과 독립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2.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의 2006년 코호트 자료로서, 2004년 8월과 2005년 2월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 502,764명을 모집단으로 한다. 이 중 표집 비율에 따라 표집된 26,544명을 대상으로 2006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은 모집단을 대표하게 된다. 본 연구에는 분석 대상이 아니거나²⁾ 분석에 사용된 변인 중 하나라도 응답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11,315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이들의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해 199,134명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변인의 구성

1) 종속변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인은 졸업자 개인의 임금과 직업만족도이다. 임금 변인은 만원 단위로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분석 이후 각 회귀계수들의 지수 값을 구해 절편값이 다시 만원 단위로 환산되도록 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의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결과 해석에 사용하였다. 직업만족도는 "현 직장(일자리)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들(11개 문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각각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의 다섯 개 선택지로 된 리커트 척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한 후 평균해 사용하였다. 하위 문항은 (1) 현 직장(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여부, (2) 임금 또는 소득, (3) 고용의 안정성, (4) 하고 있는 일의 내용(직무내용), (5) 근무환경(시설, 안전, 위생상태 등), (6) 일하는 시간(근로시간, 근무시간), (7) 개인의 발전가능성, (8) 인간관계, (9) 복리후생제도(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10) 인사체계(승진제도), (11)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등(GP051038~GP051048)이다. 11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4이었다.

2) 설명변인

임금과 직업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분석에 사용한 설명변인은 진로결정시기이다. 이 변인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과 취업 때까지 동일한 진로를 유지한 학생과 그렇지

2)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대상은 첫째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계열의 학교에 재학한 학생, 둘째 대학 전공 중 인문, 사회, 공학, 자연 계열이 아닌 의약계열이나 예체능 계열에 진학한 학생, 셋째 취업 시 임금 노동자가 아닌 비임금 노동자로 취업한 경우이다.

많은 학생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진로결정과 관련된 문항은 첫째로 학생의 고등학교 계열을 묻는 31번 문항(GP051216)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 문과와 이과를 선택한 정보이다. 다만 일반계고가 아닌 다른 학교나 문·이과가 아닌 다른 계열의 학생은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둘째로 대학에서의 계열은 D4번 문항(MAJOR)의 응답 중에서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을 선택한 학생만 사용하고, 기타 교육계열이나 의약계열, 예체능계열에 진학한 학생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셋째로 취업 상황에서 전공 일치도와 관련된 문항은 14번 문항(GP051051)에서 '현 직장(일자리)의 업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1. 전혀 맞지 않는다'는 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2. 그런대로 맞다'나 '3. 아주 잘 맞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1로 코딩하여 변인을 구성하였다.

진로결정시기와 관련된 변인은 이 세 변인을 종합해서 구성했다. 만약 고교에서 진로를 결정한 학생('고교진로결정집단')은 대학 진학 시 고교 2학년 때 선택한 문/이과 중에서 관련된 전공(문과의 경우 인문 계열이나 사회계열, 이과의 경우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으로 진학하고, 후에 자신의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학 수준에서 진로를 결정한 학생('대학진로결정집단')은 고교 때 선택한 진로와 다른 전공에(문과 학생이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에 혹은 이과 학생이 인문 계열이나 사회계열에) 진학한 후 자신의 대학 전공에 일치하는 일자리를 가진 경우를 말한다. 취업 수준에서 진로를 결정한 경우('취업진로결정집단')는 고교 계열과 동일 계열의 대학 학과에 진학했지만, 이후 대학 전공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대학 및 취업 수준에서 진로를 결정한 경우('대학&취업진로결정집단')는 대학 진학 시 고교 계열과 다른 학과에 입학했지만, 이후 대학 전공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중 고교진로결정집단을 기준변인으로 하여, 다른 세 경우('대학진로결정집단', '취업진로결정집단', '대학&취업진로결정집단')를 각각 더미 변인으로 코딩하여 진로결정시기 관련 변인을 구성하였다.

3) 통제변인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진로결정시기를 제외한 영향을 미칠 다른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세 가지 변인군을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세 변인군은 '어떤 직장에 취업 했는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떤 개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취업 관련 변인, 교육 관련 변인, 개인 배경 변인이다.

첫 번째로 취업 관련 변인은 개인의 취업형태, 직장규모, 직장소재지 관련 변인을 사용하였다. 취업형태는 '현 직장(일자리)에서 고용형태(중사상 지위)'를 묻는 5번 문항(GP051020)에 '1. 상용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만을 1로 설정하고, 임금노동자 중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응답한 학생의 경우 0을 부여하는 이분 변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단 비임금노동자의 경우 분석에 사

용하지 않았다. 이 경우 이 변인의 회귀 계수는 기타 임금 노동자에 비해 상용직이 갖는 차이를 나타낸다. 직장규모는 '일하시는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라는 8번 문항(GP051026)에 대해 무응답을 제외하고 1~9번까지 응답한 결과를 9단위로 생각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직장 소재지는 '현 직장(일자리)의 소재지'를 묻는 9번 문항(GP051027)의 응답 중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을 응답한 경우 1, 기타 지역을 0으로 코딩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 변인의 회귀계수는 기타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이 갖는 차이를 나타낸다.

두 번째로 교육 관련 변인은 대학 유형과 전공 계열, 대학 소재지, 그리고 고등학교 계열을 사용하였다. 우선 대학 유형(D3)은 2~3년제 전문대 졸업자를 기준변인으로 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를 1로 더미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이 변인의 계수는 2~3년제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갖는 차이를 나타낸다. 전공 계열은 인문 계열을 기준 변인으로 하여, 기타 계열 즉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을 각각 1로 더미 코딩하였다. 이 변인의 회귀 계수는 인문계열에 비하여 각 계열이 갖는 차이를 나타낸다. 대학 소재지 변인은 대학 소재지를 묻는 D2 문항에서 직장 소재지와 같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1로, 기타 지역을 0으로 더미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이 변인의 회귀 계수 또한 기타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이 갖는 차이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고교 계열은 문과 기준 변인으로 하여 이과를 1로 코딩하여, 회귀계수가 문과에 비해 이과가 가지는 차이를 나타나게 했다.

세 번째로 개인 배경 변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개인 배경 변인으로는 성별, 가구 수입과 아버지 학력 수준, 그리고 성별에 따른 대학 계열의 효과의 상호작용항을 사용하였다. 우선 성별 변인은 GENDER 문항을 남성을 0, 여성을 1로 더미 코딩하여, 변인의 회귀계수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차별적 차이를 나타내게 했다. 부모 수입의 경우 현재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묻는 68번 문항의 응답(GP051655) 결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그대로 7단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아버지 학력도 아버지의 최종학력을 묻는 66번 문항(GP051648)의 응답 결과를 무응답을 제외하고 7단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응답한 학력이 이수여부(졸업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아버지 학력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어머니의 학력으로 대체하여 결측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대학 계열을 본 김기현(2005)의 연구에서 구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 계열 변인과 성별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인들의 구성과 그 기초통계량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분석에 사용한 변인 구성

변인종류	변인군	변인명	구성 방법	기타
종속변인		임금	만원 단위에서 자연로그화	
		직업만족도	11개 문항 평균 (GP051038~GP051048)	$\alpha=.864$
설명변인	진로결정시기	대학 진로 결정 취업 진로 결정 대학&취업 진로 결정	'고교진로결정' ³⁾ 을 기준으 로 하여 더미 코딩함.	
통제변인	취업관련변인	취업형태	상용직을 1, 9단계	
		직장규모 ⁴⁾ 직장소재지	수도권=1, 기타지역=0	
	교육관련변인	대학 유형	4년제 졸업=1, 전문대 졸=0	
		대학 계열 사회계열	사회계열=1, 기타=0	인문계열 기준
		공학계열	공학계열=1, 기타=0	
		자연계열	자연계열=1, 기타=0	
		대학소재지	수도권=1, 기타지역=0	
		고교계열	이과=1, 문과=0	
	개인배경변인	성별	여성=1, 남성=0	
		부모 수입	100만원 단위로 7단계	
		아버지 학력 ⁵⁾	7단계	
		여성*사회계열		성별*계열
		여성*공학계열		
		여성*자연계열		

3) '문/이과-동일계열 대학진학-전공일치 취업'을 고등학교 때 진로 결정 후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 '고교진로 결정'이라 칭하고, 다른 계열의 대학을 진학한 경우 '대학진로결정',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곳에 취업한 경우 '취업진로결정'이라고 칭하였다. 뒤의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취업 진로 결정'이라고 범주화하였다.

4) 직장규모는 1. 1~4명, 2. 5~9명, 3. 10~29명, 4. 30~49명, 5. 50~99명, 6. 100~299명, 7. 300~499명, 8. 500~999명, 9. 1,000명 이상 의 9개 범주로 구성함.

5) 아버지 학력은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초급대), 6. 대학, 7. 대학원 졸업의 7개 범주로 구성함.

<표 2> 각 변인의 기초 통계량

(사례수 : 199,134명)

변인군	변인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임금(만원단위 자연로그)	5.014	0.518	0	7.82
	직업만족도	3.441	0.617	1	5
진로결정시기 (고교 진로결정=0)	대학 진로 결정	0.138	0.345	0	1
	취업 진로 결정	0.222	0.415	0	1
	대학&취업 진로 결정	0.072	0.259	0	1
취업관련변인	취업형태(상용직=1)	0.852	0.355	0	1
	직장규모	4.882	2.573	1	9
	직장소재지(수도권=1)	0.574	0.494	0	1
교육관련변인	대학 유형(4년제=1)	0.719	0.449	0	1
	대학 계열(사회계열=1)	0.338	0.473	0	1
	(공학계열=1)	0.366	0.482	0	1
	(자연계열=1)	0.147	0.354	0	1
	대학소재지(수도권=1)	0.437	0.496	0	1
	고교계열(이과=1)	0.486	0.500	0	1
개인배경변인	성별(여성=1)	0.439	0.496	0	1
	부모 수입	3.787	1.552	1	7
	아버지 학력	3.567	1.166	1	7
	여성*사회계열	0.176	0.381	0	1
	여성*공학계열	0.077	0.266	0	1
	여성*자연계열	0.082	0.275	0	1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자의 임금이나 직업만족도에 진로결정시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교 진로 결정을 전형적인 경로로 상정하고, 이 경로에 벗어나지 않는 학생과 탈락하는 학생의 패턴과 비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진로결정시기에 따라 임금이나 직업만족도가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평균 비교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또한 임금이나 직업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진로결정시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다른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취업, 교육, 배경 관련 변인군을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이를 통제변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모형 1(예측모형)에서는 예측변수인 진로결정시기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이 때 회귀계수들은 '고교진로결정집단'에 비해 다른 집단들의 임금과 직업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모형 2(취업 통제모형)에서는 모형 1에 취업관련 통제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이 때의

회귀계수는 취업형태, 직장규모, 직장소재지가 동일할 때 '고교진로결정집단'에 비해 다른 집단들의 임금과 직업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모형 3(교육 통제모형)에서는 취업 요인들과 더불어 대학유형, 대학계열, 대학소재지, 고등학교 계열 등 교육 요인이 동일할 때, 모형 4(배경 통제모형)에서는 취업 요인과 교육 요인과 더불어 성별, 부모수입, 부학력, 성별과 계열의 상호작용 등 배경 요인이 동일할 때 '고교진로결정집단'에 비해 다른 집단들의 임금과 직업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표 3>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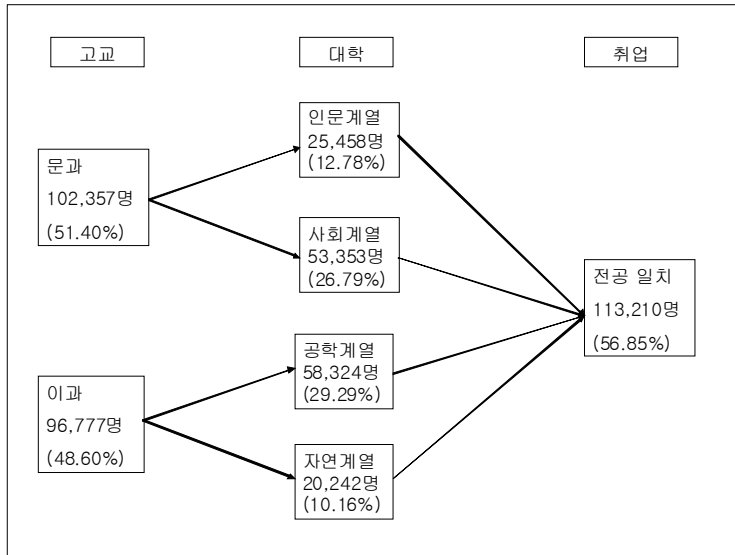
모형	투입변인
모형1(예측모형)	진로결정시기
모형2(취업 통제모형)	(모형 1) + 취업형태, 직장규모, 직장소재지
모형3(교육 통제모형)	(모형 2) + 대학유형, 대학계열, 대학소재지, 고교계열
모형4(배경 통제모형)	(모형 3) + 성별, 부모수입, 부학력, 성별*계열

IV. 연구결과

1. 고교에서의 진로선택의 유지 정도

우선 살펴본 것은 고교 2학년 때의 문/이과 선택이 이후 관련 전공과 일치하는 곳에 취업하는 학생들의 비율이다. 분석 대상인 199,134명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문/이과의 구분과 다르게 다른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41,759명(20.98%)이었다. 고교 계열에 따라서는 문과생 중 23.01%의 학생이 이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했으며, 이과생 중 18.82%의 학생이 문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 진학 시점에서 다른 계열의 학과로 의 진학이 이과보다는 문과에서 조금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 계열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도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맞는 일자리에 일하는 것은 아니었다. 고교 때의 계열 선택과 동일계열의 학과에 진학해 같은 내용의 일을 하는 학생('고교진로결정집단')은 113,219명(56.85%) 정도였다. 결국 거의 반수 가까운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처음 선택한 진로 경로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림 1] 고교에서의 진로선택 유지 정도

2. 진로결정시기에 따른 임금과 직업만족도의 차이

가. 진로결정시기에 따른 임금 차이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진로변경시기에 따라 취업 시 임금과 만족도가 어떤 차이가 나는가이다. 진로변경시기에 따라 고교진로결정집단과 대학진로결정집단, 그리고 취업진로결정집단, 대학과 취업진로결정집단, 네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고교진로결정집단’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한 문/이과 구분과 동일한 계열의 대학에 진학해 졸업 후 같은 전공 계열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을 의미하며, 전체 중 56.8%를 차지한다. ‘대학진로결정집단’은 고교의 계열 선택에 반하는 대학에 진학해 졸업 후에는 대학 전공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집단을 말하며, 전체 중 13.8%를 말한다. ‘취업진로결정집단’은 고교 계열과 같은 대학 계열에 진학했지만, 전공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22.3%). 마지막으로 ‘대학& 취업진로결정집단’은 대학진학 시 고교와 다른 계열에 진학했지만,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7.1%).

진로결정시기에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예비적 고찰로 진로결정시기별 임금과 직업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표 3>참조). 분석 결과 진로 결정 시기가 빠를수록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 고교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동일한 계열로 진학, 취업한 ‘고교진로결정집단’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165.637만원으로 가장

<표 4> 진로결정시기에 따른 임금 차이

진로결정시기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만원)	기준비	F
고교(①)	113,210	5.110	0.486	165.637	1.000	1544.562***
대학(②)	27,413	5.035	0.443	153.623	0.927	①>②***
취업(③)	44,166	4.964	0.528	143.122	0.864	②>③***
대학&취업(④)	14,344	4.885	0.516	132.277	0.799	③>④***
전체	199,134	5.051	0.498	156.147	0.943	

***p<.001

높았다. '대학진로결정집단'의 경우 '고교진로결정집단'보다 매달 12.014만원, '취업진로결정집단'의 경우 22.515만원, '대학과 취업진로결정집단'의 경우 33.360원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즉 단순히 평균 임금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진로결정시기가 빠를수록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진로결정시기에 따른 직업만족도 차이

직업만족도도 임금과 같이 진로결정시기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교진로결정집단'의 경우 직업만족도가 3.51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대학 진학 시 진로를 변경한 경우 3.473점, 취업 때 진로를 변경한 경우 3.298점, 대학 진학 때와 취업 시 진로를 변경한 경우 3.285점으로 고등학교에서 진로를 선택해 유지한 경우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다만 '취업진로결정집단'과 '대학&취업진로결정집단' 사이에는 직업만족도에 있어서 차이는 통계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분석 결과 임금처럼 진로결정시기가 빠를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진로결정시기에 따른 직업만족도 차이

진로결정시기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기준비	F
고교(①)	113,210	3.518	0.580	1.000	1824.321***
대학(②)	27,413	3.473	0.608	0.987	①>②***
취업(③)	44,166	3.298	0.620	0.937	②>③***
대학&취업(④)	14,344	3.285	0.645	0.934	②>④***
전체	199,134	3.446	0.606	0.980	

***p<.001

3. 진로결정시기가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 절에서는 진로결정시기가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 개인의 임금이나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취업한 회사의 규모나 하고 있는 일 등에 따라 높은 상관을 가질 것이며, 개인이 가진 학력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임금은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본 절에서는 이런 요인들과 더불어 진로결정시기의 차이가 독립적으로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임금이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첫째 진로결정시기와 관련된 변인을 가지고 임금과 직업만족도를 설명해 보았다. 두 번째로 개인이 취업한 회사의 규모나 지역, 취업 형태 등이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통제하였다. 세 번째로는 개인이 받은 교육 수준과 내용에 따라 임금과 직업만족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전공 계열과 대학의 소재 지역을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이나 사회경제적배경과 같은 개인 배경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성별과 아버지의 교육 수준, 그리고 월 평균 가구 수입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가. 진로결정시기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시기가 임금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 1에서는 진로결정시기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보여준다. 고교에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의 경우, 매월 평균 165.633만원이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 진학 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은 고교 때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 비해 11.926만원(156.147만원*7.2%), 취업할 때 진로를 결정한 학생은 21.236만원, 대학과 취업 시 모두 진로를 변경한 학생은 31.386만원 매월 수입을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개인이 어느 회사에 취업했는지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것이 통제되었다 하더라도 진로결정시기가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취업 관련 변인들을 통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진로결정시기에 따라 임금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진로를 고교 때 결정한 집단에 비해 대학 때 결정한 집단은 3.481만원, 취업 시기에 결정한 집단은 11.399만원, 대학과 취업 시기에 결정한 집단은 20.924만원 더 적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에 취업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81.9% 정도 높은 127.884만원 더 많이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규모에 따라서도

<표 6> 진로결정시기가 임금에 미친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 계수	표준 오차	exp(B)	회귀 계수	표준 오차	exp(B)	회귀 계수	표준 오차	exp(B)	회귀 계수	표준 오차	exp(B)
절편	5.110	0.001	165.633 ***	4.243	0.003	69.624 ***	4.097	0.004	60.183 ***	4.150	0.006	63.462 ***
대학 진로 결정	-0.075	0.003	0.928 ***	-0.051	0.003	0.950 ***	-0.017	0.003	0.983 ***	-0.006	0.003	0.994 *
취업 진로 결정	-0.146	0.003	0.864 ***	-0.076	0.002	0.927 ***	-0.053	0.002	0.948 ***	-0.056	0.002	0.945 ***
대학&취업 진로 결정	-0.225	0.004	0.799 ***	-0.143	0.004	0.866 ***	-0.097	0.004	0.908 ***	-0.092	0.003	0.912 ***
취업형태(상용직)				0.598	0.003	1.819 ***	0.585	0.003	1.796 ***	0.541	0.002	1.719 ***
직장규모				0.063	0.000	1.065 ***	0.056	0.000	1.058 ***	0.052	0.000	1.053 ***
직장소재지(수도권)				0.046	0.002	1.047 ***	0.005	0.002	1.005 *	0.006	0.002	1.006 **
대학 유형(4년제)							0.108	0.002	1.114 ***	0.102	0.002	1.107 ***
사회계열							0.090	0.003	1.094 ***	0.126	0.004	1.134 ***
공학계열							0.123	0.003	1.131 ***	0.085	0.005	1.089 ***
자연계열							0.005	0.004	1.005	0.036	0.005	1.036 ***
대학소재지(수도권)							0.083	0.002	1.087 ***	0.067	0.002	1.069 ***
고교계열(이과)							0.015	0.002	1.015 ***	-0.010	0.002	0.990 ***
성별(여성)										-0.157	0.005	0.855 ***
부모 수입										0.049	0.001	1.051 ***
아버지 학력										-0.018	0.001	0.982 ***
여성*사회계열										-0.116	0.006	0.890 ***
여성*공학계열										-0.043	0.006	0.958 ***
여성*자연계열										-0.061	0.007	0.941 ***
R ²	.023			.344			.364			.428		

***p<.001, **p<.01, *p<.05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 규모가 한 단위 커질 때마다 6.5%, 10.150만원 더 많은 수입을 개인이 얻을 수 있었다. 만약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보다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약 81.2만원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직장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7.339만원 매월 더 많은 소득을 얻었다.

모형 3에서는 모형2에 학생이 가진 교육적 배경을 통제했다. 우선 모형2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관련 변인을 통제해 주었을 때에도 그 차이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진로결정시기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진로를 고교 때 결정한 집단에 비해 대학 때 결정한 집단은 2.654만원, 취업 시기에 결정한 집단은 8.120만원, 대학과 취업 시기에 결정한 집단은 14.366만원 더 적은 소득 밖에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관련 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비해 17.801만원 더 많은 수입을 얻었다. 대학에서 어느 전공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도 임금의 차이가 있었는데, 인문계열에 비해 사회계열은 14.678만원, 공학계열은 20.455만원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계열의 학생의 경우, 인문계열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소득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졸업한 대학소재지도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 자신이 졸업한

학교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13.585만원의 소득 효과를 나타냈다. 고교 단계에서도 계열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를 선택한다면, 문과를 선택한 학생에 비해 2.342만원 더 높은 소득을 얻었다.

모형 4에서는 모형3에 임금에 대한 성별이나 가구 수입, 부 학력 등 개인적 배경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모형4에서 통제된 후에도 진로결정시기에 따른 효과는 남아 있었다. 고교 때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 가장 많은 수입을 얻었으며, 대학에서 진로를 결정한 학생은 월평균 약 0.937만원, 취업에서 진로를 결정한 학생은 8.588만원, 대학과 취업 시기에서 두 차례 결정을 바꾼 학생은 13.741만원 더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개인 배경 변인의 효과에 따라서는 우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매달 22.641만원 더 낮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수입과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라도 개인의 수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수입이 한 단위 올라갈 때마다 7.963만원 자녀의 수입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학력이 한 단위 올라갈 때마다 2.811만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약 가구 수입이 100만원 더 커짐에 따라 자녀의 수입이 7.963만원 더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대신에 아버지가 고졸인 경우보다 전문대 졸업 학력을 가진 경우 2.811만원 더 낮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외의 결과인데, 학생 수준에서 교육 수준이 통제된 결과라고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계열 간의 연관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 간의 상호 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계열에서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공학계열의 학생들이 더 많은 수입을 얻는데 반해, 여성들의 경우 인문계열을 전공하는 경우가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에 전공 효과보다 성별의 영향력이 강력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나. 진로결정시기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시기가 직업의 만족하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모형 1에서는 진로결정시기가 직업만족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고교 때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 비해 이후 진로를 바꾼 학생들의 경우 직업만족도가 낮았다. 대학에서 진로를 결정한 학생은 0.045점 더 낮은 3.473점의 직업만족도를 나타냈다. 취업 때 진로를 선택한 학생은 고교 때 선택한 학생에 비해 0.220점 직업만족도가 낮았으며, 대학과 취업 때 모두 진로를 바꾼 학생은 0.234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과 마찬가지로 진로결정시기가 늦어질수록 직업만족도가 떨어졌다.

모형 2에서는 취업 관련 변인을 통제했을 때에도 진로결정시기 관련된 변인들이 독립적인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계수의 크기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진로결정시기는 취업관련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직업만족도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 고교 진로 결정 학생들보다 대학에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0.041점, 취업 때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은 0.202점, 대학 진학과 취업 시점에 모두 변경한 학생들은 0.214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형태에 따라 상용직일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직업만족도가 0.214점 더 높아졌다. 직장규모가 1단위 커질 때도 0.018점 더 높아졌으나, 직장이 수도권에 있을 때 지방에 존재할 때 보다 직업만족도가 0.049점이 더 낮았다.

<표 7> 진로결정시기가 직업만족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절편	3.518	0.002 ***	3.272	0.005 ***	3.247	0.006 ***	3.258	0.009 ***
대학 진로 결정	-0.045	0.004 ***	-0.041	0.004 ***	-0.029	0.004 ***	-0.019	0.004 ***
취업 진로 결정	-0.220	0.003 ***	-0.202	0.003 ***	-0.197	0.003 ***	-0.199	0.003 ***
대학&취업 진로 결정	-0.234	0.005 ***	-0.214	0.005 ***	-0.197	0.005 ***	-0.190	0.005 ***
취업형태(상용직)			0.214	0.004 ***	0.212	0.004 ***	0.193	0.004 ***
직장규모			0.018	0.001 ***	0.016	0.001 ***	0.014	0.001 ***
직장소재지(수도권)			-0.049	0.003 ***	-0.056	0.003 ***	-0.061	0.003 ***
대학 유형(4년제)					0.033	0.003 ***	0.026	0.003 ***
사회계열					0.007	0.004	-0.048	0.007 ***
공학계열					0.005	0.005	-0.050	0.007 ***
자연계열					-0.035	0.005 ***	-0.027	0.008 **
대학소재지(수도권)					0.014	0.003 ***	0.003	0.003
고교계열(이과)					0.013	0.003 ***	-0.001	0.003
성별(여성)							-0.135	0.007 ***
부모 수입							0.020	0.001 ***
아버지 학력							0.011	0.001 ***
여성*사회계열							0.069	0.009 ***
여성*공학계열							0.046	0.009 ***
여성*자연계열							-0.026	0.010 *
R ²	.027		.052		.053		.062	

***p<.001, **p<.01, *p<.05

모형 3에서는 학생의 교육적 배경을 통제했다. 이들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진로결정시기는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관련 변인을 통제했을 때 고등학교에서 선택한 진로를 유지한 학생들보다 대학 진학시 진로를 변경한 학생들이 직업만족도가 0.029점 더 낮았다. 이전 모형에서는 취업 단계에서 진로를 변경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과 취업 두 단계에서 모두 진로를 변경한 학생들보다 직업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나. 그 차이

가 거의 없는 것으로 줄어들었다. 대학 유형에 따라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보다 0.033점 더 높게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한 대학의 계열에 따라서는 인문계열에 비해 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의 직업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연계열은 0.035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수도권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경우 지방 대학을 졸업한 경우보다 직업만족도가 0.014점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이과를 졸업한 학생이 문과를 졸업한 학생보다 직업만족도가 0.013점 더 높았다.

모형 4에서는 학생 개인 배경과 관련된 변인을 통제했다. 배경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진로결정시기와 관련된 변인의 영향력은 남아있었다. 개인 배경을 통제한 후에도 대학 진학 시 진로를 변경한 학생들은 유지한 학생들에 비해 0.019점 더 낮았다. 취업 시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 0.199점 더 낮았으며, 대학 진학 때 고교 계열과 다른 계열에 진학했으나 그 전공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 0.190점 더 낮은 직업 만족 수준을 보였다. 임금과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모두 진로결정시기가 늦어질수록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향력의 크기가 임금의 경우보다는 직업만족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대학소재지와 고등학교 계열로 인한 직업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이전 모형에서 나타났던 효과들이 결국은 배경변인의 차이로 인함이었음을 말한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직업만족도가 0.135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수입에 따라서는 한 단계 수입이 더 많은 가정의 학생들일수록 0.020점 더 직업만족도가 높았으며, 아버지 학력 수준이 한 단계 높을수록 0.011점 더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계열의 차이가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모형에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자연계열만이 인문계열에 비해 직업만족도가 0.035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직업만족도의 하락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을 전공한 여성은 인문계열을 전공한 남성에 비해 약 0.161점 더 낮은 직업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런 경향은 다른 계열에서도 동일하게 남성보다 직업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의 경우 0.135점, 공학계열의 경우 0.089점, 사회계열의 경우 0.066점 더 낮은 직업만족도를 나타냈다.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진로 결정시기에 따른 임금과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고등학교 수준에서

의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이후 직업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직업까지 연결되는 비율이 약 57%라는 점이다. 이는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결정 중 절반 정도가 이후 변화됨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수준과 학업태도 및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장경문, 2005; 황매향, 박혜영, 2005),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학업태도와 학문과 관련된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시기에서 진로결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고등학생의 학업태도 및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결정을 50% 가까운 학생들이 바꾼다는 것은 고등학교 재학 중의 진로결정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직업과 관련된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의 계열 구분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의 성숙됨에 따라 선택과목의 폭이 확대되고 학생의 진로결정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문·이과의 구분에 비해 점진적으로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에서의 진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의 세 단계로 진로결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을 때, 진로결정시기가 빠른 집단에서의 임금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번째의 논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 진로결정수준의 시기를 당기고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즉,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상급학교(대학교)에서의 적응이나 학업태도가 달라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직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임금이나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본 연구 결과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지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셋째, 본 연구의 중심연구문제는 아니었지만 분석 결과, 여성과 남성의 임금과 직업만족도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열별로도 부가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여성의 경우 임금수준이 인문계열에 비해 사회·공학·자연계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았으며, 특히 사회계열에서 임금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여성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결과이며, 성별을 변인으로 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태홍, 김종숙, 2002; 최영섭, 박재민, 2007). 이정표의 연구에서는(2004) 여성 청년층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실태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개인주의적 접근, 사회구조적 관점,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 등의 관점에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대졸자가 계열별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남성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분석했는데, 이정표(2004)의 연구가 다양한 여성 청년층의 취업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과 다른 이유에 대해 입대 기

간에 대한 경력 산정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단순히 성별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성별에 따른 대졸자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2.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직업세계를 연결하는 연구가 부족함에 주목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에 대한 결정이 이후 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시험적 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전공과 직무일치의 영향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개인의 능력 변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Robst(2007) 역시 지적하고 있듯이, 대학에서의 전공자가 그 분야의 직무에서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졸업자의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전공과 직무의 불일치가 반드시 진로지도가 잘못되었거나 선발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공과 불일치한 직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요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전공과 직무의 불일치에 대한 전공간 차이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Wolniak과 Pascarella(2005)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전공에 따라 임금과 전공일치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이는 전공에서 어떠한 기술을 익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인문학이나 언어와 관련된 전공의 경우 전공직무일치도의 개념이 낮은 일반적인 내용을 학습하게 되고 따라서 전공직무일치취업이라는 인식이 낮은 반면, 이과 계열이나 공학 계열의 경우 매우 구체적인 기술을 학습하게 되어 전공과 직무 일치의 인식수준이 높다. 이는 전공 간 전공직무일치도가 만족도나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앞으로 직업세계에 대한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과 실제 기술 간의 괴리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호이론에 따르면, 졸업장을 가졌다고 해서 개인이 그 분야와 관련된 혹은 그 직무와 관련된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일종의 신호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Allen과 van der Velden(2001)은 skill mismatch와 educational mismatch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관한 학위를 받았거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곧 그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교육=기술습득'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기현(2005). 교육과 직무의 불일치: 한·일 대학졸업자들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5(3), 51-77.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안국(2006). 이공계 대졸 청년층의 직장이동과 전공직종일치 분석. *노동경제논집*, 29(10), 153-184.
- 김정숙, 황여정(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0(3), 1-23.
- 김태홍, 김종숙(2002). 여성 청년층집단의 취업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류창열(1990). 발달이론에 나타난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진로발달과업. *Report of the Ind. Educ. Research Center*, 13(1), 15-22.
- 신희경, 이종승(2006). 학과 선택의 내적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한 고등학교의 진로결정수준이 대학 만족도 및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정표(2004). 여성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실태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7(1), 117-140.
- 장경문(200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6(1), 186-196.
- 장원섭(1997). *교육과 일의 사회학*. 서울: 학지사.
- 장원섭, 김형만, 옥준필(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I): 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0).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II): 고등교육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 최지희, 옥준필(200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I):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영섭, 박재민(2007). 이공계 고등교육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과정 분석: 일자리 유형별 취업 소요 기간 분석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0(2), 1-24.
- 황매향, 박혜영(2005).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직업능력개발연구*, 8(2).

157-176.

- Allen, J. & van der Velden, R.(2001). Educational mismatches versus skill mismatches: Effects on wages, job satisfaction, and on-the-job search. *Oxford Economic Papers* 3, 434-452.
- Elton, C. F., & Smart, J. C.(1988). Extrinsic job satisfaction and person-environment congru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226-238.
- Eric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Norton.
- Fricko, M. M., & Beehr, T. A.(1992).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interest congruence and gender concentration as predictors of job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45, 99-117.
- Ginzberg, E., Ginsburg, S.W., Axelrad, S., & Herma, J. L(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vighurst, R. J.(1953).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
- Robst, J.(2007). Education and job match: The relatedness of college major and work.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6, 397-407.
- Rosenbaum, J.(2001). *Beyond college for all: Career paths for the forgotten half*.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Smart, J. C., Elton, C. F., & McLaughlin, G. W.(1986). Person-environment congruenc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9, 216-225.
- Super, D. E.(1955). *Measuring vocational maturity for counseling and evaluation*. Amer Personnel & Guidance Assn.
- _____ (1957). *Psychology of careers*. Harper & Row.
- Wolniak, G. C. & Pascarella, E. T.(2005). The effects of college major and job field congruence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 233-251.

* 논문접수 2008년 10월 30일 / 1차 심사 2008년 11월 25일 / 게재승인 2008년 12월 19일

* 박소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의 교육행정학과에서 Ph.D.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e-mail: syngprk@kedi.re.kr

* 민병철: 서울교대에서 학사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e-mail: bcmin@kedi.re.kr

Abstract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at High Schools on Income and Job Satisfaction: Based on Cases of General High Schools

So-Young Park* · Byeong-Cheol Mi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at high schools on income and job satisfaction later on. There are discussions on the appropriate time for decision making related with career. Traditionally, students at general high schools are required to choose at the end of the first year if they take humanity and social science related curriculum or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The decision for intensive courses at this point largely affects their department of university that they apply for and job field later on. Although the significant effects of the decision at high schools, the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 career decision making are barely explored. This is why this study is set up. Therefore, the research questions are described as follows: 1) How many students stay on the decisions that they made at high schools? 2) If they stay on the decision that they made at high schools, is their satisfaction higher than other students'? 3) Does the time for decision making affect income and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say that about 43% of the students take the different choices from the choices that they took at high schools. As the decision making is delayed, income and job satisfaction is lower.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is implied that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is emphasized at secondary schools.

Key words: transition from education to labor market, career decision making, income, job satisfaction, career counseling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itue